

금호Mitsui화학, MDI 1만톤 증설

Mitsui Takeda 12만톤 생산체제 구축 ... 아시아 수요호조 대응

Mitsui Takeda Chemical이 한국 합작기업의 MDI(Diphenylmethane Diisocyanate) 생산능력을 증설하고 있다.

금호Mitsui화학은 여수 소재 MDI 5만톤 플랜트를 1만톤 증설해 6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 아래 이미 증설공사에 들어가 2005년 완공할 예정이다.

일본 6만톤과 합쳐 총 12만톤 생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한국 및 아시아의 MDI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앞으로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본격적인 증설에 나설 방침이다. Mitsui Takeda Chemical은 Hukuoka에서 6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당초 정제에서 출발했으나 단계적인 증설로 현재는 5만톤 플랜트를 가동해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MDI는 일본의 수요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으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 물동량이 증가해 수급밸런스가 타이 트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수요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의 MDI 수요는 냉장고, 단열재, 건축자재, 합성피혁, 구두밑창, 스판덱스, 자동차 시트 생산증가에 따라 연평균 8% 정도 신장할 전망이다.

다만, 2006년에는 상하이에서 24만톤 플랜트가 완공되고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어 수익체질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대 성장지역인 중국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설비개조를 통해 증설에 임하고 이후 한국이나 중국을 후보지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9/01>